



“머슴 되겠다” 지게 유세 최병식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마선거구) 구의원 후보가 27일 광산구 월계동에서 ‘주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게를 짊어지고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모내기 봉사 유세 배진하 통합진보당 광주 남구(라선거구·오른쪽) 구의원 후보와 박정준 남구(제3선거구) 시의원 후보가 27일 도·농 복합지역인 남구 대촌 일대를 돌며 모내기 봉사 유세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尹이나 姜이나...이용섭 지지표 향방이 승부 가른다

광주 문화예술인 770명 “윤장현 후보 지지”

광주시장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 후보 간 양강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무소속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이용섭 후보 지지표의 향배가 승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시 윤·강·이 후보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강 후보 측은 물론 윤 후보 측까지 이 후보 지지자들의 표심을 흡수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단 강 후보는 27일 이 후보와 보폭을 맞추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이 후보 지지층 끌어안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 후보가 이 후보와 이날 오전 5~18 묘지를 참배하고, 이 후보 측 핵심 참모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강 시장은 “이용섭 동지의 아를

양강구도 재편 광주시장 선거 판세

단일화 前 20%대 지지율

여론조사 일단 단일후보 지지

성향상으론尹후보에 가까워

尹·姜, 지지층 흡수 총력전

다운 결정에 존경을 표한다”며 이 후보의 ‘아름다운 패배’를 추켜세우는 등 이 후보를 최대한 예우했다.

이 후보도 일단 예초 약속대로 강 후보의 삼일선 거대책임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강 후보의 호의에

부응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이 후보 지지자들의 표심이 강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단일화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강 후보와 이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 ‘수지상’으로는 단일화에 실패한 후보 지지자들이 거의 이탈표 없이 ‘단일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3~24일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강운태·이용섭 후보 중 강운태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강 후보(47.5%)가 윤 후보(23.7%)를 두 배가량 앞섰다. 다자대결에서는 강 후보 28.7%, 이 후보 20.5%, 윤 후보 20.4%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강 후보가 이 후보 표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론조사대로 이 후보 지지표가 강 후보에게 모두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하다. 이 후보 지지층의 상당수는 성향상 강 후보보다는 윤 후보쪽에 가까워 윤 후보쪽으로 기울 것이라 관측이다. 따라서 윤 후보 측에서도 이 같은 성향의 이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 조직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강 후보를 밀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체제의 오만함과 비민주성을 심판해야 할지, 아니면 보다 진보적인 윤 후보를 밀어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캠프의 한 핵심인사는 “이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한 명분은 안철수·김한길 체제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윤 후보의 패배를 통해서 명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따라서 강 후보 측에서 이 후보를 계속 배려한다면 이 후보의 행보는 당연히 강 후보를 지원할 것이고 지지층도 대부분은 이 후보의 입장에 호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770명은 “새로운 시민문화공동체 건설을 함께할 수 있는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술, 음악, 연극, 전통예술 등 각계 대표 예술인 60여명은 지난 26일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윤 후보는 민주·인권·평화를 신봉하고 광주정신과 광주공동체 발전을 위해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윤 후보가 “비엔날레 개혁, 미술인 지원, 대중음악과 월드뮤직 등 광주음악 육성 등 광주 문화 예술인의 친근한 벗으로 활동해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시민주권의 시대, 광주자치 시민문화공동체는 때 묻은 정치인도 행정관료도 만들어갈 수 없다”며 “광주를 사랑하는 진짜 광주인만이 훌륭한 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교육감 후보들 정치권 도움 좀 받아볼까

변별력 없어 선거운동 안 먹혀...너도나도 정책연대 추진

광주시교육감 후보들이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 유도과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진보 대 보수’ 등 이념 대결이 사라져 후보 간 변별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이나 광주시장 후보와의 정책 연대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관심을 끌고, 정책연대로 표심도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왕복 후보가 가장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전략공천을 환영하며 ‘선수’를 쳤다. 하지만 상대 후보들로부터 선거법 위반 공격을 받으면서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며 한발을 뻗고 있다.

양형일 후보는 윤장현 후보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지역 특성상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만큼 교육감 선거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후보는 열린우리당 시절

17대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으로 정책연대를 이끌어 내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시의회의 의장을 지낸 윤봉근 후보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물론 새정치를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강운태 후보와의 협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국 후보는 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지원을 받으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정당과의 직접 연대보다는 지역별 교육현안에 뜻을 같이하는 구청장 후보와의 현안별 연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에 교육감 후보 지원이나 정책 연대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시장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마당에 교육감 선거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다. 또 일부 후보에만 힘을 실어줄 경우 여타 다른 후보의 반발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보당,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확보 총력전

3~4곳 초접전, 4명 이상 당선돼야...이정희 대표 지원 호소

통합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정희 대표가 26~27일 이틀간 광주를 방문, 시의원 선거구 전략지역을 찾아 총력 지원을 펼쳤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광주시의원 3~4곳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해당 선거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만 4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면서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기초의원 전원 당선에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한 뒤 관공을 해외연수가 금지됐고, 마을마다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대형마트의 무리한 입점을 막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시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광주시의원 후보 4명 이상이 당선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의원 선거에 기초의원 선

거구 전체와 광역의원(시의원) 선거구 13곳에 후보를 출마시켰다.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는 “현재 자체 여론조사 결과 광산구 4곳과 서구 1곳이 초접전 지역”이라며 “광주시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해 시의회의 오랜 독립구조를 깨뜨릴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 포인트”라며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8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고,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1명의 시의원과 14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하는 등 지방의원 선거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한편, 이정희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의 전략적 선택으로 진보당으로 야권을 재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광주가 바로 서야 야당이 바로 선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고있어서 당당히 맞서 온 진보당을 지지해 달라”면서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대표전화: (062) 234-3222
FAX: (062)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규환
http://www.joytour.kr
(한국영주증 발행 가능)

여름방학 무안출발 ↔ 다낭 전세계 (VN항공)총6회
7/30,8/03,8/07,8/11,8/15,8/19

관광: 다낭,호이안,후에 3박 5일 **준특급 999,000~**
특급 1,099,000~

유양: 다낭/호이안 3박 5일 (호핑투어),노티프,노움선 **특급 1,290,000~**
초특급 1,499,000~

*불포함사항: 여권및 개인경비,유류할증료(130,000원)/기사,가이드탑성인(408)

[추석연휴]무안-대만 전세계! 9/6(토), 단1회! ALL 포함 조건!!!

실속: 대만,아류,화련 3박4일 **1,320,000**

통격: 대만,아류,화련 3박4일 **1,420,000**

아시아항공으로 ▶ 북경 태항산 4일 **899,000~**
▶ 떠나는 북경 태항산 ▶ 북경 태항산 5일 **999,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299,000**

출발일: 6/10/6/12/6/17/6/19/6/30/7/9
*불포함사항: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8명이상 단독행사 가능 (별장 1동씩 드립니다).
주말(목,금출발은 요금인상됩니다)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6/10/6/12/6/17/6/19/6/30/7/9
*불포함사항: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카멜리아 **399,000**

카멜리아 **일본 큐슈 구중산 유후다케 등산 3일 149,000~**
출발일: 6/10, 6/12, 6/14, 6/16

카멜리아 [all포함]일본 10대 명산 구중산 철축 트래킹 4일 **540,000**
출발일: 6/11,18 *광주 출도착,전통료칸+후쿠오카 시내 특급호텔

항공 **일본고급 료칸및 특급호텔숙박!!**
큐슈 3박4일 **599,000~**

항공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불포함사항: 국내수송, 유류세, 기사/가이드

무안에서 출발하는 민족의 명산 백두산여행!!!

실속 **연길,백두산(북파)웅정,도문 4일 999,000~**

통격 **연길,백두산(북파)웅정,도문 4일 1,089,000~**

실속 **연길,백두산(서파+북파),웅정, 4일 1,059,000~**

통격 **연길,백두산(서파+북파),웅정, 4일 1,159,000~**

실속 **연길,백두산(서파+북파),웅정,도문 5일 1,089,000~**

통격 **연길,백두산(서파+북파),웅정,도문 5일 1,199,000~**

*불포함사항: 유류세(W93,000), 중국단체비자(W33,000), 가이드/기사팀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광주출: 기사/가이드탑(10,000), 현지직원관광, 자유의지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목포출: 기사/가이드탑(10,000), 현지직원관광, 자유의지

항공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내포항 직항(합속기준)

항공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 교통조건: 여행 경비 1년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대상: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차역
*여행 및 숙박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업체 *예약서 계약서(주소권)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기념품은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역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